

한국의 경력내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

김병관*

이 논문의 목적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초기단계의 한국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생애사 자료에 나타난 직업이동의 개인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1954년에서 1983년까지 30년 동안의 성인 남녀의 경력내 연간 직업이동들을 모형화하였다.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자영업, 육체노동직업, 농업의 5개 직업범주를 통하여 연원 이동표상에 나타난 이동형태는 비이동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이동의 절대량으로 볼 때 비이동성의 정도는 각 직업군에서 달리 나타나, 요약하면 U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이동의 형태는 직업간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선형모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필자는 개념적·이론적 작업과 모형추정의 방법론적 작업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대수선형모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1)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경력간) 이동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며, 2) 불평등구조 관점, 노동시장적 관점, 생애사적 관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동표의 분석에서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상대적 규모 외에 크게 6가지의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설명요인들(지속성, 천정, 전통부문, 비육체노동, 대안적 이동경로, 직업간 거리)에 바탕을 둔 모형을 통하여 경력이동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지속성 요인과 천정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이동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세대내(경력내) 직업이동에서는 자영업으로의 대안적 이동경로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대각선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성 요인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지속성 요인의 효과는 서구 선진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학)

산업사회에서의 U자형과는 달리 역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및 농업간의 직업간 거리에 의한 부의 이동효과가 명백히 발견된다. 셋째, 공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도달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비육체노동직업간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쌍방향적이며, 다른 직업군에 대해 배타적이다. 다섯째, 유출과 유입의 양 측면에 있어 자영업은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이다.

1. 서론

이 논문은 산업화 초기단계의 한국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구조적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경력내 직업이동의 구조적 형태를 연구함에 있어 필자는 경력내 직업이동을 각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직업구조 속에서 겪는 이동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여기에서 이동이란 비이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경력내 이동들은 직업이동의 전형적인 경로들을 집합적 수준에서 노출시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직업이동의 길들간의 상호연관의 밑그림이야말로 이 논문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구조적 형태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경력내 직업이동의 구조적 형태는 개인의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특징들을 두 가지 수준에서 보여줄 수 있다. 사회구조의 수준에서, 그것은 노동시장의 직업적 영역들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작동되며 제도화되는가를 보여준다. 개인적 수준에서, 그것은 개인의 미래의 직업적 위치와 삶의 기회들이 현재의 직업적 경로의 망 속에서의 위치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달리 표현하면, 이동의 구조적 형태는 주어진 시점에서 노동시장내의 역사적·제도적 장치들을 반영하는 개인의 이동경로의 집합적 형태이다.

직업이동의 구조적 형태를 연구함에 있어 본 논문은 골드소프(Goldthorpe, 1981)가 제시한 바의 절대적·상대적 이동의 구별을 따른다. 골드소프는 이동표에서 발견되는 이동의 총체를 절대적 이동과 상대적 이동으로 분할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절대적·상대적 이동형태의 구분은 이동표 분석에 있어 대수선형적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절대적 이동형태는 우

리가 통상적으로 출발과 도달직업의 이원적 교차표에서 발견하는 유출 및 유입의 형태를 의미한다. 상대적 이동형태는 대수선형모형의 기법에 의해 이동표상의 출발 및 도달직업의 규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해내고 남은 유출과 유입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논문은 대수선형적 분석에 기초한 직업이동연구의 대부분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형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산업화 초기사회의 맥락에 적합한 개념적 분석도식에 기초하며 이를 새로운 형태의 대수선형모형적 분석으로 연계하여 좀더 설득력있는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자료 및 변수

1) 연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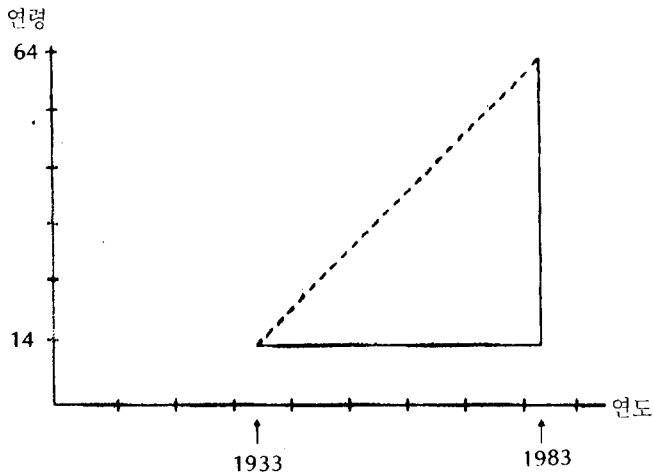
필자는 이미 세대내 직업이동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첫번째 직업-현재직업’의 교차에 의한 이동표 대신에 연원이동표(person-year mobility table)를 분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Kim, 1994). 연원이동표의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인 개인들의 경력 전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정보는 회고적으로 수집되는 생애사 자료나 패널연구에 의해 얻어진다.

1983년에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녀 8,707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표본조사 ‘전국 인구가동 특별조사’가 이 논문에서 자료로 사용된다.¹⁾ 회고적으로 수집된 생애사 자료인 이 연구자료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렉시스도(Lexis diagram)에서 삼각형 모양의 시간-연령적 공간을 차지한다. 자료가 개인의 직업적 경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4세부터 64세까지의 각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직업적 궤적을 1년을 단위로 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상세한 정보는 우리가 원하는 바의 연원이동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연원

1) 이동연구의 맥락에서 이 자료의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점들에 대해서는 김(Kim, 1994)을 참고하십시오.

이동표의 구축은 다양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시간폭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954년을 기점으로 1983년(자료수집 시점)까지의 30년 기간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동표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이동표에 반영된 개인의 연령대는 14세에서 44세까지 30년간의 기간으로 제한되었다.

그림1 KNMS 자료의 형태



자료에 대한 기초적 사실들이 표1에 기술되어 있다. 총응답자 8,707명의 성인남녀의 생애의 매년을 단위로 하여 수집된 생애사 정보 중 1954년에서 1983년 사이의 기간, 또 14세에서 44세 사이의 연령대에 해당되는 관측치의 총연원수는 56,817이다. 이 연원 관측치들이 본 연구의 이동표 구성의 기초단위가 되며,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관측치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직업계급

본 논문의 분석은 5개의 직업집단의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그 직업집단들은 1)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2)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3) 자영업, 4) 육체노동직업, 5) 농업의 5가지이다.²⁾ 이러한 직업집단간 분류는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는 직업계급의 분류와 상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는 전통적인 3계급모형(비육체노동, 육체노동, 농업)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으며 또 흔히 EGP계급분류라고 불리는 골드소프 중심의 계급분류(Erikson, Goldthorpe, and Portocarero, 1979)와도 상응한다.

표1 인구가동 특별조사자료에 대한 기초적 기술

1. 조사응답자수(1983)	8,707(100%)
2. 경제활동 참가 경험자수	5,877(68%)
3. 44세 이전 경제활동 참가 경험자수	5,830(67%)
1939년 이전 출생자수	1,618(28%)
44세 이전 경제활동 참가년수(평균)	14.4
1939년 이후 출생자수(평균)	4,213(72%)
1983년 이전 경제활동 참가년수(평균)	8.7
4. 1954~83년 기간중 14~44세의 총년원수	56,817

3. 직업이동의 절대적 양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연원이동표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2는 각 개인의 1년 단위 이동경험들을 누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2를 중심으로 한국의 산업화 초기 경력내 직업이동의 절대적 형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분포를 살펴보자. 이 분포들은 공히 농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각 분포에서 농업은 전체 직업의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생산직, 즉 육체노동직업군이 25% 남짓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은 15% 남짓, 하위 비육체노동직업군은 12% 남짓, 상위 비육체노동직업군은 5% 남짓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표2에서 우리는 5개의 직업군이 공통적으로 대단히 높은 잔류율로 특징지워짐을 볼 수 있다. 대각선상의 셀에 표시된 유출률로 나타나는 잔류율이 가장 높은

2) 물론 이외에 비경제활동인구층이 따로 존재한다. 연구의 목적상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출과 유입은 이동표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표2 연원이동표(1954~1983년, 14~44세)

출발직업 (Year <i>t</i>)	도달직업 (Year <i>t+1</i>)					계
	UNM	LNМ	SEM	MAN	FAR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U)	2858 (97.4)	33 (1.1)	20 (0.7)	15 (0.5)	9 (0.3)	2936 (5.2)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L)	51 (0.7)	6571 (95.1)	152 (2.2)	90 (1.3)	48 (0.7)	6912 (12.2)
자영업 (S)	14 (0.2)	40 (0.5)	8250 (97.0)	143 (1.7)	60 (0.7)	8509 (15.0)
육체노동직업 (M)	21 (0.1)	72 (0.5)	301 (2.1)	13771 (96.0)	173 (1.2)	14339 (25.2)
농업 (F)	7 (0.0)	89 (0.4)	144 (0.6)	358 (1.5)	23524 (97.5)	24123 (42.5)
계	2952 (5.2)	6805 (12.0)	8868 (15.6)	14377 (25.3)	23815 (41.9)	56817 (100.0)

주: 계를 제외한 괄호 안의 수치는 유희백분율임.

농업의 경우 97.5%의 사람들이 1년 후에도 여전히 농업에 남아 있어 단지 2.5%의 사람들만이 평균적으로 매년 농업으로부터 다른 직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잔류율이 가장 낮은 하위 비육체노동직업군의 경우에도 잔류율은 95.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찰된 이동의 시간적 단위가 1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높은 잔류율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범주의 직업군의 경계를 넘는 이동은 사실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또한 그러한 특성 때문에 그저 공통적으로 높다고만 생각되는 잔류율에 있어서의 미세한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증폭되어 나타날 때의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3에서 우리는 표2에서의 잔류율이 매년 계속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지속적 잔류의 확률을 누적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1년간의 잔류율은 최고 97.5%에서 최하 95.1%까지 불과 2.4%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차이는 5년이 지나면

10.3%로, 10년이 지나면 17.1%로, 20년이 지나면 23.7%로 증폭된다. 하위 비육체노동직업의 경우 1년 후 잔류율은 95%에 달하지만 10년 후 잔류율은 60%이며 30년 후 잔류율은 22%에 불과하다.

표3 동일 직업계급내 지속적 잔류확률(1954~83)

(단위: 백분율)

경과시간	계	UNM	LNМ	SEM	MAN	FAR
1년	96.8	97.4	95.1	97.0	96.0	97.5
5년	85.0	87.7	77.8	85.9	81.5	88.1
10년	72.2	76.8	60.5	73.7	66.5	77.6
20년	52.2	59.0	36.6	54.4	44.2	60.3
30년	37.7	45.4	22.2	40.1	29.4	46.8

4. 직업이동의 상대적 양태

1) 연구모형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총체적 이동형태의 절대적·상대적 이동형태의 분할을 채택하고 있다. 상대적 이동형태의 분석을 위해서는 대수선형모형에 의한 직업규모의 효과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수선형모형의 한 특수한 형태인 위상학적 모형(topological model)의 도입이 사회이동표 분석을 통한 이동연구의 전통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³⁾ 위상학적 모형은 간결성과 함께 이동표의 모든 셀의 관측치들을 효과적으로 예측·재생해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우스저(Hausser, 1978)의 '다밀도수준·단일행렬표' 전략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초기 위상학적 모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되어 왔다. 그 하나는 하우스저의 모형구축전략의 물이론적 성격이다. 하우스저의 모형구축은 별다른 이론적 선

3) 위상학적 모형이 사회이동표 분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는 하우스저(Hausser, 1975, 1978, 1981) 혹은 김(Kim, 1995)을 참조하시오.

행작업에 기초하지 않고 단지 이동표상의 관측치들을 재현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모형추정의 기법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상학적 모형은 비결정성(indeterminacy)의 난점을 안고 있다. 즉 모형추정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여러 가지 다른 모형들이 똑같은 정도의 적합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핀티넨(Pöntinen, 1982: 106)의 결론에 따르면 이동표 분석을 위한 적합한 전략은 1) 이론적 사고들에 좀더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2) 그러한 이론적 사고들과 그에 상응하는 수리적 모형의 구조와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릭슨과 골드소프(Erikson and Goldthorpe, 1987a, 1987b)의 작업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사회이동의 구조적 형태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바탕으로 이를 검증해내기 위한 대수선형모형의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하우저의 그것과는 달리 '단일밀도수준(이원적 수준)·다행렬표'(multi-binary matrices) 전략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새로운 모형전략은 셀들의 집합을 명백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념적 요인에 결부시킴으로써 모형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전략은 이러한 하나의 이론적 개념들을 나타내는 이원적(binary) 수준의 행렬표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이론적 개념들을 동시에 분할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전략에서 각각의 셀은 연구자가 가설을 세우는 대로 복수의 이원적 행렬표에 할당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셀의 상대적 이동률은 그 셀에 적용되는 각 이론적 개념의 효과 추정치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결국, 에릭슨과 골드소프의 새로운 모형구축전략은 각 셀의 상호작용효과 추정치들을 복수의 개념적 요인들에 의해 분할하고 있다. 이처럼 개념적으로 결합된 연구모형의 구축을 추구함에 있어서 간결성(parsimony)의 손실은 조금도 없다는 것이 이 모형구축전략의 강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모형구축전략을 채택하여 연원이동표의 분석을 시도한다. 다만 이러한 모형의 구축에 동원되는 개념적·이론적 자원들은 한국사회의 산업화 초기단계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채택된 모형은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이 대수선형의 형태를 취한다. 아래에서 첫번째 제시된 모형은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대수선형모형, 즉 포

화상태의 출발-도달직업 이동모형(saturated origin-destination mobility model)이다. 두번째 제시된 모형은 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원적 행렬표에 의한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출발직업의 각 범주를 O로 표시하고 도달직업의 각 범주를 D로 표시할 때, 포화 모형은 정규화제약(normalization constraint)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O = 1, \dots, I$, $D = 1, \dots, J$ 이고 m_{ij} 는 ij 번째 셀의 관측치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포화모형은 이동표의 관측치들을 완벽하게 재생해 낸다.

$$L_n(m_{ij}) = \mu + \lambda_i^O + \lambda_j^D + \lambda_{ij}^{OD}$$

이동의 상대적 형태를 중복되는 복수(k 개)의 이원행렬표로 분할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에릭슨과 골드소프의 다행렬모형은 이원행렬표의 벡터를 P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모형에 근거하여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L_n(m_{ij}) = \mu + \lambda_i^O + \lambda_j^D + \lambda_{k(ij)}^P$$

2) 세대간 이동과 경력이동

여기에서 우리는 모형구축전략 수립에서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경력내 이동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이동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간 사회이동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 — 그것이 계급적 위치이건 사회경제적 지위점수이건 간에 — 의 이동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세대내 이동, 특히 누적적 직업이동에 대한 연구는 세대간 이동의 불평등구조의 재생에 대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두 가지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이해와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이해이다. 이처럼 세대내 직업이동연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계승 혹은 지속과 아울러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맥락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생애과정이라는 개인의 일생에서 시간적 연속성의 현상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론적 모형구축에는 이러

한 세 가지 관점이 모두 포괄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3) 한국의 경력내 직업이동모형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모형은 전술한 바 있는 에릭슨과 골드소프의 다행렬 위상적 모형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형태의 모형에서, 상호작용효과에 나타난 상대적 이동확률은 복수의 이원적 행렬표들에 의해 분할되고 각각의 이원적 행렬표는 서로 다른 한 가지의 이론적 자원에 기초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동형태와 과정을 복수의 개념적 효과추정치로 직접적으로 측정·표현할 수 있게 된다.

에릭슨과 골드소프(Erikson and Goldthorpe, 1987a, 1987b; Ishida, Gorthorpe, and Erikson, 1991)는 세대간 이동을 연구함에 있어 서열, 상속, 부문효과, 직업적 친화력 등을 포함하는 8개의 개념을 대표하는 8개의 이원적 행렬표로 구성되는 위상학적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계급적 위치의 구조 속에서 선호도, 상대적 강점, 제약 등에서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찬트와 웨스턴(Chant and Western, 1991) 역시 대각선, 자산, 기술, 직업적 친화도 등의 개념을 나타내는 5개의 이원적 행렬표를 이용하여 세대간 이동을 연구하였다.

두 연구에서 공히 우리는 직업적 친화도의 개념이 다른 개념들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잔여구조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연원 직업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필자는 두 가지 기본적 전략을 따른다. 그 첫번째 전략은 대각선상의 셀에서 비이동성의 형태와 대각선 밖의 셀에서 이동성의 형태를 공히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세대간 이동형태와 비교해볼 때 세대내 이동형태는 이동보다는 비이동에 의해서 지배된다. 기존의 직업이동 연구에서 우리는 늘 대각선상의 셀에서 관측치들의 집중을 볼 수 있다.⁴⁾ 따라서 대각선상의 셀과 대각선 밖의 셀의 이동패턴을 차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내 이동연구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연원이동표에서는 대각

4) 브룸과 존스(Broom and Jones, 1969), 립셋과 벤딕스(Lipset and Bendix, 1959), 페더만과 하우스저(Featherman and Hauser, 1978) 등을 참조하시오.

선상의 셀의 크기는 측정시간의 단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시간의 단위가 미세할수록 우리는 대각선상의 셀에 훨씬 더 높은 정도의 관측수의 집중을 보게 된다. 필자의 견해에는 직업이동연구의 경우에 1년 정도가 적당한 관측의 단위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관측시간의 단위는 자의적이다. 반면에 대각선 밖의 셀에 기록되는 직업이동의 사건(event)의 경우에는 시간의 단위에 상관없이 기록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의 단위 크기에 의해 좌우되는 대각선상의 셀과 대각선 밖의 셀과의 구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시간의 측정단위에 의한 대각선상에의 관측의 집중현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각선상의 셀과 대각선 밖의 셀은 분명히 구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분석모형구축의 두번째 전략은 세대내 직업이동과 관련된 개념적 요인들을 그 요인들의 정·부(positive/negative)의 효과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첫번째 집단은 이동의 상대적 확률을 증진시키는 요인들로 구성된다. 두번째 집단은 이동의 상대적 확률을 제한하는 요인들로 구성된다.⁵⁾ 각각의 개념적 요인들은 하나의 이원적 행렬표로 표시되며 이동의 상대적 확률을 증진시키는 요인의 경우 해당되는 셀에 대한 양의 추정치, 그리고 나머지 셀에 대한 0의 추정치⁶⁾를 예측하게 된다. 반대로 상대적 확률을 제한하는 요인의 경우 해당되는 셀에 대한 음의 추정치, 그리고 나머지 셀에 대한 0의 추정치를 예측하게 된다. 특정한 셀의 상대적 이동확률은 그 셀에 해당되는 추정치들의 합으로 결정된다.

모형 속에 포함된 개념적 요인들의 각각과 그들의 조합은 산업화 초기의 한국사회의 경력구조와 직업적 위치에서의 보상과 접근기회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2는 본 논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형을 구성하는 8개의 개념적 요인의 각각에 대한 이원적 행렬표(binary matrix)들이다.

상대적 이동확률을 증진시키는 요인들 중에서, 먼저 대각선상의 셀에만 작용하는 요인들에 주목하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표, 특히 연원 경력이동표에서는 매우 강한 비이동성의 경향이 발견된다. 모든 대각선상의 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이동성의 일반적 경향을 지속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즉 지속성은 그림2

5) 비슷한 접근방법으로는 존스 등(Jones et al., 1990)을 참조하십시오.

6) 대수선형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추정치도 대수(log scale)로 나타난다.

그림2 이동형태에 대한 개념적 행렬표

가. 상대적 이동확률을 증진시키는 요인

(1) 지속성

	U	L	S	M	F
UNM	1	0	0	0	0
LNМ	0	1	0	0	0
SEM	0	0	1	0	0
MAN	0	0	0	1	0
FAR	0	0	0	0	1

(2) 천정효과

	U	L	S	M	F
UNM	1	0	0	0	0
LNМ	0	0	0	0	0
SEM	0	0	0	0	0
MAN	0	0	0	0	0
FAR	0	0	0	0	0

(3) 전통부동

	U	L	S	M	F
UNM	0	0	0	0	0
LNМ	0	0	0	0	0
SEM	0	0	1	0	0
MAN	0	0	0	0	0
FAR	0	0	0	0	1

(4) 비육체노동

	U	L	S	M	F
UNM	1	1	0	0	0
LNМ	1	1	0	0	0
SEM	0	0	0	0	0
MAN	0	0	0	0	0
FAR	0	0	0	0	0

(5) 대안적 경로

	U	L	S	M	F
UNM	0	0	1	0	0
LNМ	0	0	1	0	0
SEM	0	0	0	0	0
MAN	0	0	1	0	0
FAR	0	0	0	0	0

(6) 대안적 경로II

	U	L	S	M	F
UNM	0	0	0	0	0
LNМ	0	0	1	0	0
SEM	0	0	0	0	0
MAN	0	0	0	0	0
FAR	0	0	0	0	0

나. 상대적 이동확률을 감소시키는 요인

(7) 거리

	U	L	S	M	F
UNM	0	0	0	1	1
LNМ	0	0	0	1	1
SEM	0	0	0	0	0
MAN	0	0	0	0	0
FAR	1	0	0	0	0

(8) 거리II

	U	L	S	M	F
UNM	0	0	0	0	0
LNМ	0	0	0	0	0
SEM	0	0	0	0	0
MAN	0	0	0	0	0
FAR	1	0	0	0	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대각선상의 5개 셀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크기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자기 직업군내에서 상대적 이동확률을 증진시키는 두번째 요인은 천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천정효과는 기존의 이동연구에서 흔히 지적되어왔던 것으로 직업적 서열의 최상에 위치하는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에만 부가적으로 해당되는 비이동성의 힘이다. 이는 이 직업군이 보상체계에서 최상의 위치에 놓여 있고, 그 점유자들이 일종의 사회적 폐쇄(Parkin, 1979; Goldthorpe, 1980: 42~46)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강한 비이동성의 경향뿐만이 아니라 외부를 향한 장벽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자기 직업군내에서 상대적 이동확률을 증진시키는 세번째 요인은 전통부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전통부문효과는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영업과 농업의 대각선상 셀에만 부가적으로 작용한다. 이 두 개 셀에서 비이동성의 경향성이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전통적 노동의 성격을 띠는 농업과 소상공 서비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그들 자신 혹은 가족에 의해 소유되는 소규모의 생산수단을 중심으로 노동한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그들을 다른 고용기회로 이끌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셋째, 그들 중 일부는 근대적 부문에서 다른 고용기회에 적합하지 않은 의식이나 태도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창의성, 독립성,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등의 긍정적인 것은 물론 규율의 결여, 일에 대한 헌신의 부족, 현대적 작업환경에 대한 미숙 등의 부정적인 것들도 포함한다. 특히 자영업은 블라우와 던칸이 강조하는 바처럼 단순한 고용보다는 강한 직업적 투자와 헌신이라는 경제적·심리적 이유로 비이동성을 증진시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Blau and Duncan, 1967: 41).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특성들은 전통부문 직업과 근대부문 직업들 사이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농업의 경우, 근대적 부문에서 고용의 기회와 이동의 주된 제도적 장치들로부터 지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좀더 비이동적이다.

상대적 이동확률을 증진시키는 요인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대각선 밖의 셀들에 작용하는 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네번째 요인은 비육체노동직업군의 효과이다. 상위와 하위의 비육체노동직업으로 구성되는 이 블록내에서 강한 자기유지적 내부이동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3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

다. 첫째, 이 블록은 직업상의 보상구조에 있어 최상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천정효과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직업블록내에서는 유사한 종류의 교육적 자격과 직업적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셋째,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직업블록 내부에 제도적으로 다양한 이동경로들이 구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직업블록과 다른 직업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장벽이 구축되어 있음도 볼 수 있다.

상대적 이동확률을 증진시키는 다섯번째 요인은 대안적 이동경로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대안적 이동경로의 개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료적 혹은 조직적 부문과 기업가적 혹은 자영업 부문의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Anderson, 1955; Lipset and Bendix, 1959; Koo, 1976; Hong, 1980). 이동경로의 제도적 구축 형태와 개인차원의 이동전략의 모색에서 이러한 양 부문의 구분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거나 잔류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자원의 유용성이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부문에서 승진이나 상승이동의 통로가 제한되어 있거나 혹은 그러한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형태의 경로를 통해 상승이동 혹은 생존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지칭하는 대안적 이동경로이며 그 이동의 도달지는 자영업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이 상대적 이동확률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이었음에 반해, 직업이동의 구조에는 상대적 이동확률을 제약하는 힘들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힘들은 본 연구에서는 총괄적으로 직업간의 사회적 거리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본 논문은 직업구조상에서의 보상과 직업들 사이의 접근가능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다소 애매한 힘을 지칭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구조상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이동표의 우상의 모서리에 있는 4개의 셀에 주목한다. 비육체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 사이의 사회적 거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큰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으로의 유입을 위한 필요자격의 종류와 양은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이 갖추고 있는 것인바, 산업화 초기의 한국사회에서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는 이러한 형태의 이동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의 총합인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동의 상대적 확률을 결정하는 6가지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에서 논의한 6가지 요인 외에 대안적 이동경로 II와 직업간 거리 II의 두 요인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고의 분석은 이동의 상대적 확률을 결정하는 8개의 개념적 요인들을 대표하는 8개의 이원적 행렬표를 바탕으로 하는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표4는 이러한 8개의 이원행렬표들이 이동표내의 각 셀에 대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4에서 우리는 이동표의 전체 25개 셀 중에서 8개의 셀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인도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이 8개의 셀에서 상호작용의 총화적 효과가 0이 되도록 모델을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⁷⁾ 이 8개의 셀은 각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상대적 규모의 효과에 의해서만 예측할 수

표4 모델 6의 8개 이원 상호작용 행렬의 누적적 효과

출발직업\도달직업	UNM	LNM	SEM	MAN	FAR
UNM	지속성 +천정효과 +비육체노동	비육체노동	대안적 경로	거리	거리
LNM	비육체노동		대안적 경로+대안 적 경로II	거리	거리
SEM			지속성+ 전통부문		
MAN	거리	거리	대안적 경로	지속성	
FAR	거리+거리II				지속성+ 전통부문

주: 표의 수치는 계수의 추정치를 자연로그스케일의 로그스가수형태로 표시한 것임.

7) 이는 또한 본고에서 효과코딩들이 아닌 더미코딩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미코딩들에 대해서는 각주9의 논의를 참조하시오.

있도록 디자인된 셈이다. 따라서 다른 셀에서 효과계수 추정치들은 이 8개 셀로부터의 이탈정도라는 비교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4) 통계적 검정

생애내 직업이동의 분석을 위한 몇 가지 대표적 대수선형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는 표5에 제시되어 있다. 표5에서 모형1은 출발직업과 도달직업 간의 관련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소위 독립가설모형이다. 모형2는 의사독립가설모형으로서 이는 출발직업과 도달직업간의 관련은 대각선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바탕하고 있다.

모형3과 4는 각각 대각선가설모형의 한 형태로서 독립의 가정을 조금씩 완화·변형시킨 것이다. 모형2에서 5개의 대각선 셀을 모두 완벽하게 재생해내면서 5개의 자유도를 잃은 것에 비해, 모형3에서는 1개의 자유도만을 희생시키면서 대각선 셀들을 재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형4에서는 자유도 3개를 희생시키면서 대각선 셀들을 재생하고 있다.

이상 모형4까지 4개의 모형에 대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를 보면, 독립가설모형보다는 대각선가설모형이, 또 그보다는 의사독립가설모형이 훨씬 좋은 추정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우도비검정(likelihood-ratio test)의 결과 (G^2)나 BIC 통계치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형은 아직 우리의 최종적 모형으로 채택되기에는 그 적합도에서 불충분하다.

모형5와 6은 구조태가설모형으로서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직업이동의 개념적 이원행렬표들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5는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크기, 지속성, 천정, 전통부문, 비육체노동, 대안적 경로, 거리 등의 구조태에 관한 개념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형6은 모형5의 설명요소들에 대안적 경로II, 거리II의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검정치들을 통해 볼 때 모형5는 전통적인 검정기준에서 충분히 채택할 만하다. 그러나 이동표상의 조정 후 잔여(adjusted residuals)⁸⁾에 대한 고찰 후 필자는 두 개의 모수를 추가한 모형6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두 개의 추가적 모수에 의해

8) 조정 후 잔여에 관해서는 Haberman(1973; 1978), Agresti(1984)를 참고하십시오.

표5 생애내 직업이동 구조모형의 통계적 검증

모형	모형기술	G ²	d. f.	P	100×G _H ² /G _T ²	100×G _H ² /G _Q ²	△	BIC
독립가설 모형(Independence Model)								
모형1	[O][D]	1440033.8	16	p<.000	100.00		68.5	139856.6
의사독립가설 모형(Quasi-Independence Model)								
모형2	[O][D][Diagonal Cell1][Diag3 [Diag4][Diag5]	237.1	11	p<.000	0.17	100.0	0.4	116.7
대각선가설 모형(Diagonal Model)								
모형3	[O][D][Per]	728.2	15	p<.000	0.52		1.2	564.0
모형4	[O][D][Per] [Cei][Tra]	426.8	13	p<.000	0.30		1.0	284.5
구조태가설모형(Structural Pattern Model)								
모형5	[O][D][Per] [Cei][Tra][Non] [Alt][Dis]	13.3	10	p=.205	0.01	5.6	0.1	-96.2
모형6	[O][D][Per] [Cei][Tra][Non] [Alt][Dis][Alt2] [Dis2]	2.8	8	p=.945	0.00	1.2	0.04	-84.5

주: 1. △는 Index of Dissimilarity를 나타냄.

2. 100×G_H²/G_T²는 독립가설모형(모형1) 하의 총상관 중 설명되지 않은 부분의 크기임.
3. 100×G_H²/G_Q²는 의사독립가설모형(모형2) 하의 총상관 중 설명되지 않은 부분의 크기임.
4. 표에서, O는 출발직업, D는 도달직업, Per는 지속성(Persistence), Cei는 천정(Ceiling), Tra는 전통부문(Traditional Sectors), Non은 비육체노동(Nonmanual Occupations), Alt는 대안적 이동경로(Alternative Channels), Dis는 직업간 거리(Distance)를 가리킨다.

밝혀지는 이동표상의 연관형태는 자료수집상의 오차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고, 따라서 모형6은 과도한 적합도추구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후 잔여의 선명한 형태와 해석가능한 추가적 모수 때문에 필자는 모형5보다는 모형6을

채택하였다.

이 논문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된 모형6에서, 이동표내 각 셀의 관측치들은 출발 직업과 도달직업의 분포와 8개의 연관요소들에 대한 모수에 의해 예측된다. 모형6은 이동표 연구의 전통적 적합도 검정기준들에 의해 볼 때 매우 훌륭한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도비 통계($p=.945$)는 모형6이 훌륭하게 자료를 예측해냄을 보여주고 있다. BIC 통계치(-84.5) 또한 모형6이 충분히 채택할 만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6은 모형5에 비해 유의미한 통계적 개선을 가져온다. 우도비 검정치(G^2)의 차이는 10.5(자유도 2)이다. 또한 모형6에서는 조정 후 잔여항이 모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형6을 최종 설명모형으로 채택하고 이에 바탕을 둔 논의를 아래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5) 효과계수

앞 절에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모형6에 이르기까지의 모형검정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 추정된 설명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추정치가 표6에 제시되어 있다. 표6은 독립가설모형(모형1), 대각선가설모형(모형3), 구조태가설모형(모형5, 6)에서의 효과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6의 연관효과계수를 논의하기 전에 표6의 계수들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범주적 변인(categorical variable)의 수리적 추정을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의 코딩들의 채택이 필요하다. 사회이동 연구에서 많이 채택되었던 코딩들은 효과코딩들(effect coding scheme)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효과코딩들 대신 더미코딩들(dummy coding scheme)을 채택하였다. 두 코딩들간의 차이는 모수추정치에 대한 제약의 형태에 의한 것이다.⁹⁾

9) 대수선형모형에서 특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모수추정치에 대한 정규화제약(normalization constraint)이 어떠한 형태로든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규화제약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효과코딩과 더미코딩이다. 효과코딩이 각 변인의 모든 범주에 있어서의 추정치의 합이 0이 되도록 제약을 하는 것임에 비해 더미코딩은 각 변인의 임의의 한 범주의 추정치가 0이 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효과코딩들에서 추정치는 그 변인의 모든 범주에서의 평균으로부터의 이탈정도로 해석된다.

더미코딩들의 채택은 그것이 해석상에 있어 비교적 직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미코딩의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추정치가 기본범주와의 비교에 의해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직관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에 효과코딩들에서는 비교의 기준이 모든 범주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치들이 여러 변인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직관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표6에서 모형의 효과계수에 대한 추정치들을 살펴보자. 표6의 첫번째 5행은 5개의 출발직업군의 규모의 상대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5개 행은 5개의 도달직업군의 규모의 상대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발 및 도달직업에 있어 5번째 범주인 농업에 대한 효과계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농업 직업군이 모형의 추정계획에 의해 기본범주, 즉 비교대상 범주로 채택되어 원래 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직업군들의 효과추정치들은 기본범주인 농업으로부터의 이탈정도(deviation)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출발과 도달직업 양측에서 공히 농업이 가장 큰 직업군임을 생각한다면 다른 효과계수들이 모두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직업군의 절대적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계수 또한 작을 수밖에 없다. 표6에서 보듯이 출발과 도달직업 양측에서 공히 가장 작은 효과계수는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하위 비육체노동직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발 및 도달직업의 상대적 효과에 있어서는 각 직업군의 절대적 크기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출발과 도달직업군에 대한 효과계수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8행의 효과계수들은 그림2에서 제시된 바 있는 8개의 개념적 연관설명요인들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인 모형6의 효과추정치들을 살펴보면 6개의 추정치는 양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직업간 거리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2개의 추정치만 음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정치들은 우리들의 개념적 가설들을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추정치들 중 우리가 연간 비이동성의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기 위해 설정했던 지속성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직업군에 속해있던 간에 같은

이에 비해 더미코딩들에서 추정치는 디자인에 의해 0으로 정해진 특정 기본범주로부터의 이탈 정도로 해석된다.

표6 각 모형내의 계수 측정치

효과계수	모형1 ($p < .000$)	모형3 ($p < .000$)	모형5 ($p = .205$)	모형6 ($p = .945$)
λ^0_{UNM}	-2.11 (.02)	1.33 (.05)	2.46 (.14)	-2.70 (.17)
λ^0_{LNM}	1.25 (.01)	0.71 (.05)	0.63 (.12)	-1.01 (.18)
λ^0_{SEM}	-1.04 (.01)	-1.15 (.04)	0.92 (.06)	-0.91 (.06)
λ^0_{MAN}	-0.52 (.01)	-0.51 (.04)	0.15 (.08) [?]	-0.04 (.09) [?]
λ^0_{FAR}				
λ^D_{UNM}	-2.09 (.02)	-0.83 (.05)	-1.77 (.13)	-1.76 (.14)
λ^D_{LNM}	-1.25 (.01)	-0.56 (.05)	-0.45 (.10)	-0.56 (.11)
λ^D_{SEM}	0.99 (.01)	-0.11 (.04)	-0.12 (.06)	-0.14 (.06)
λ^D_{MAN}	-0.50 (.01)	0.01 (.04) [?]	0.80 (.07)	0.76 (.07)
λ^D_{FAR}				
λ^{Per}_1		4.70 (.03)	3.52 (.09)	3.63 (.09)
λ^{Cei}_1			2.32 (.18)	2.05 (.20)
λ^{Tra}_1			1.49 (.13)	1.33 (.14)
λ^{Non}_1			1.29 (.14)	1.63 (.20)
λ^{Alt}_1			0.65 (.10)	0.70 (.10)
$\lambda^{Alt^2}_1$				0.37 (.17)
λ^{Dis}_1			-0.62 (.11)	-0.32 (.15)
$\lambda^{Dis^2}_1$				-1.03 (.41)

? $p > .05$

주: 공간으로 비워진 계수는 모두 각 모형의 디자인 단계에서 0(zero)으로 정해진 것임.

직업군내에 머무르는 비이동성의 경향과 관성은 대단히 큰 것이다. 그러나 상위 비육체노동직업군에서는 지속성의 일반적 경향 외에도 천정효과와 비육체노동직업 효과라는 두종류의 비이동성의 역학이 추가로 작용하고 있다. 하위 비육체노동직업에서 비이동성은 이보다는 조금 약하다. 지속성 효과와 비육체노동직업 효과는 작용하나 천정효과는 작용하지 않는다. 자영업과 농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통부문의 비이동성 효과가 적용되나 비육체노동직업의 비이동성만큼 강한 비이동성을 보이지는 못한다. 모든 직업군 중 비이동성은 육체노동직업에서 가장 낮다.

대각선 밖의 셀에서 발견되는 직업간 이동에 작용하는 요인들 중에는, 비육체노동 직업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안적 이동경로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며 직업간 거리의 효과 또한 부의 관계로서 약하다. 농업으로부터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으로의 이동은 직업간 거리II 효과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과에 대한 토의

앞에서 우리는 모형내의 각 개념적 설명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모수추정치들을 살펴보았다. 출발직업과 도달직업 사이의 연관에 관한 구조태를 개념적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셈이다. 여기에서는 직업이동의 총체적 형태에 관심을 돌려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개념적 설명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추정치들을 해당되는 각 셀의 총합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치들의 총합은 표7의 이동표내에서 각 셀의 이동강도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표7에서 우리는 한국의 산업화 초기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주요한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각선을 따라 매우 강한 비이동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이동성은 잔류 혹은 지속의 정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이동성은 비육체노동직업군에서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강한 비이동성은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상위 비육체노동집단의 연간 잔류율은 육체노동직업이나 농업으로의 연간 이동확률에 비해 무려 2,059배($=e(7.31 - (-0.32))$)에 이른다. 두번째로 강한 비이동성은 하위 비육체노동직업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발견은 대단히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준다.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이동성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하위 비육체노동직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7 모형6의 상대적 이동확률 계수의 구조

출발직업\도달직업	UNM	LNМ	SEM	MAN	FAR
UNM	7.31	1.63	0.70	-0.32	-0.32
LNМ	1.63	5.26	1.07	-0.32	-0.32
SEM	0	0	4.96	0	0
MAN	0.32	0.32	0.70	3.63	0
FAR	-1.35	0	0	0	4.96

주: 표의 수치는 계수의 추정치를 자연로그스케일의 로그가수형태로 표시한 것임.

(Stier and Grusky, 1990: 745). 한국의 산업화 초기에서 이러한 독특한 발견은 아마도 두 가지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번째는 일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태도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육체노동과 비육체노동의 구별 및 차별이 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의 공급속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산업화 초기단계에 육체노동직업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최소한의 교육적 자격만이 요구되는 비숙련노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장인적 전통과 숙련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식 교육기관들을 통해 배출된 인력은 그들을 숙련노동의 직업으로 이끌 만한 특별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비정상적 형태는 직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더불어 비육체노동직업에서 높은 비이동성과 육체노동직업에서의 낮은 비이동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참고로 육체노동직업의 경우를 보면, 가장 낮은 비이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의 비이동성에 비해보면 $1/40 (=e(3.63-7.31))$ 에 불과하며 하위 비육체노동직업의 비이동성에 비해보면 $1/5 (=e(3.63-5.26))$ 에 불과하다.

육체노동직업뿐 아니라 자영업과 농업의 비이동성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두 직업군에서 비이동성은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에 비하면 $1/10 (=e(4.96-7.31))$ 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이동성의 형태는 선진 산업사회에서 보고된 것들과는 분명히 다르

다. 에릭슨과 골드소프(Erikson and Goldthorpe, 1987a: 71)의 유럽과 미국에서 세대간 계급이동 연구는 상위 비육체계급과 함께 농업과 자영업부문에서의 높은 비이동성을 보고하고 있다. 스티어와 그러스키(Stier and Grusky, 1990)의 미국에서 세대내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 또한 농업에서 높은 비이동성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산업사회에서 직업 및 계급이동의 일반적 형태는 U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각선의 양 끝, 즉 상위 비육체노동과 농업에서 가장 높은 비이동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7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는 이와 같지 않다. 비유를 한다면 한국에서 직업이동표상의 대각선에서 비이동성 형태는 역-J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J형의 비이동성 구조에서 하위직업들의 곡선상에서의 특성과 위치를 살펴보자. 하위직업들은 상대적으로 관성이 낮고 비지속적이며 비제한적이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에서의 초기 산업화단계에서 세대내의 개인적 직업이동을 통한 계급의 고착화가 하위계급에서 매우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직업계급구조가 개방적이었으며 이동이 자유롭고 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해석은 물론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직업계급구조의 반대쪽, 즉 상위직업들에서 이동 및 비이동의 형태가 마찬가지로 개방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비이동성을 중심으로 본 이동의 형태는 역-J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표7에서 우리는 음의 연관효과계수들이 이동표의 우상과 좌하의 두 모서리에서 각기 블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이동의 형태를 직업간 거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음의 효과계수는 해당되는 각 셀에서 무연관의 가정하에서의 기대치보다 실제 관측치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상과 좌하의 두 모서리에서 유일하게 음의 효과계수들의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및 농업 사이의 이동확률에서의 거리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동확률의 거리는 또한 쌍방향이다. 즉 비육체노동직업으로부터 육체노동직업 및 농업으로의 이동이 드문 만큼 그 반대방향으로의 이동 또한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업으로부터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으로의 직접 이동은 훨씬 더 드물다. 농업으로부터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으로 직접 이동할 확률은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확률에 비해 1/4에 불과하다.

셋째, 농업으로부터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자영업 혹은 육체노동직업으로 이동할 확률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모형에 의하면, 이러한 이동들은 본 연구에서 설명요인으로 이용된 연관효과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도달직업의 분포효과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넷째, 양의 연관효과계수들은 대각선 밖의 셀들 중 다섯 곳에서 발견된다. 이들 중 둘은 좌상의 비육체노동직업 블록내에서 발견되며 나머지 셋은 자영업으로의 이동과 관련된 셀에서 발견된다. 기대했던 대로 비육체노동직업 블록내에서의 이동은 확률적으로 매우 높으며 이들 직업으로부터의, 또 이들 직업으로의 이동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하위 비육체노동직업에 있는 사람이 일년 후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으로 이동해 있을 확률은 육체노동직업에 있는 사람의 동일한 종류의 이동확률보다 7배 ($=e(1.63 - (-0.32))$) 나 크다.

그러나 비육체노동직업 블록내에서 이동확률은 양 방향에서 대칭적이다. 하위 비육체노동직업에서 상위 비육체노동직업으로의 이동확률은 그 역방향의 확률과 동일하다.

다섯째, 자영업으로부터의 그리고 자영업으로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자. 자영업으로부터의 유출과 자영업으로의 유입을 나타내는 대각선 밖의 8개의 셀 중 5개의 셀은 효과계수 0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의 셀은 약한 양의 연관효과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자영업으로부터의 유출에 해당되는 4개의 셀은 모두 모형의 디자인에 의해 0으로 고정되어 있다. 총체적 확률의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인이 자영업으로부터 이동할 때 각 도달직업에 대한 확률은 모형의 디자인에 의해서 도달직업의 상대적 규모효과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자영업으로의 유입을 나타내는 4개의 셀 중 3개는 약하나마 양의 효과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오직 농업으로부터의 유입효과만이 디자인에 의해 0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3개의 셀 중 하위 비육체노동직업으로부터의 이동이 비교적 강한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하위 비육체노동 계급으로부터 자영업으로의 세대내 직업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영업으로부터의 유출과 자영업으로의 유입에서의 차등적 연관은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의 두 가지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 첫째는 자영업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보다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자영업의 두 가지 기능을 시사하고 있다. 즉 자영업은 다른 경로 — 주로 공식조직내에서의 경쟁 및 연공서열 — 를 통한 이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게 대안적 이동경로를 제공해 준다. 또한 자영업은 장거리이동 — 상승이동 및 하강이동을 포괄하는 — 을 방지하거나 매개하는 완충기제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자영업의 두번째 특성은 자영업으로의 유입경로는 여러 직업군에 대해 차등적으로 열려 있지만 그 반대방향으로 자영업으로부터의 유출 및 다른 직업으로의 유입 확률은 다른 여러 직업군에 대해 동일한 정도로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이 제도화된 이동경로에 완전하게 편입되어 있지 않고 자영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어떠한 예정되고 계획된 경력선(career line)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를 반영한다. 즉, 자영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각 개인에게 있어 이동 확률의 측면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또 특별히 장애가 되지도 않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서는 그것은 주류경제의 외곽에서 벌어지는 노동의 현상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서는 그들의 직업적 경력의 본격적 전개 전 단계에서 택하는 한시적·임시적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구조의 대칭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표7에서 대각선을 중심으로 한 대칭적 셀 10쌍 중에서 오직 5쌍만이 대칭적이다. 즉 5쌍만이 같은 효과계수를 가진다는 뜻이다. 상위 비육체노동직업과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상위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하위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자영업과 농업, 육체노동직업과 농업 사이의 이동만이 양 방향으로 대칭적이다. 상대적 이동확률의 대칭성가설은 우리 사회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대칭성의 제약을 이동표에 강요함으로써 모형의 간결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진정한 이동형태를 밝히는 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볼 수 있다.¹⁰⁾

10) 하우스저(Hausser, 1978; 1980; 1981)의 이동구조모형화전략에서는 대칭성의 가정이 대단히 중요한 전제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초기단계의 한국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생애사 자료에 나타난 직업이동의 개인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1954년에서 1983년까지 30년 동안의 성인 중 남녀의 경력내 연간 직업이동들을 모형화하였다.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자영업, 육체노동직업, 그리고 농업의 5개 직업범주를 통하여 연원 이동표상에 나타난 이동형태는 비이동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이동의 절대량으로 볼 때 비이동성의 정도는 각 직업군에서 달리 나타나, 요약하면 I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위 비육체노동직업과 농업의 양 극단에 있는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비이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이동의 형태는 직업간 거리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선형 모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필자는 개념적·이론적 작업과 모형추정의 방법론적 작업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대수선형모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1)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경력간) 이동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며, 2) 불평등구조 관점, 노동시장적 관점, 생애사적 관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정치들을 이끌어냈다. 이 모형은 이동표의 분석에서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상대적 규모 외에 크게 6가지의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설명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속성, 천정, 전통부문, 비육체노동, 대안적 이동경로, 직업간 거리 등이 그것이다. 최종모형은 통계적으로 훌륭한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 요인별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지속성, 천정, 비육체노동, 전통부문, 그리고 대안적 이동경로 등의 순으로 각 요인이 이동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간 거리의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지속성 요인과 천정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이동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세대내(경력내) 직업이동에서는 자영업으로의 대안적

이동경로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대각선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성 요인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지속성 요인의 효과는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의 U자형과는 달리 역-J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및 농업간의 직업간 거리에 의한 부의 이동효과가 명백히 발견된다. 셋째, 농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도달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비육체노동직업간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쌍방향적이며, 다른 직업군에 대해 배타적이다. 다섯째, 유출과 유입의 양 측면에서 자영업은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경력내 직업이동의 절대적·상대적 형태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 경험한 한국의 예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과 설명의 일반적 적합성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에서의 경험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또한 동일한 모형의 시간적 비교에 의한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차종천(1987), "경제발전과 사회이동의 관계에 대한 대수선형모형분석의 검토", <한국사회학> 21(4): 187~208.
- Blau, Peter and Otis Dudley Duncan(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 Broom, Leonard and F. Lancaster Jones(1969), "Career Mobility in Three Societies: Australia, Italy,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October): 650~8.
- Chant, David and Mark Western(1991), "The Analysis of Mobility Regimes: Implementing Using SAS Procedures and an Australian Case Study",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0(2): 256~86.
- Erikson, Robert, John H. Goldthorpe, and Lucienne Portocarero(1979),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in Three Western European Societies: England, France, and Swede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0(4): 415~41.
- (1982), "Social Fluidity in Industrial Nations: England, France and Swede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3(1): 1~34.
- Erikson, Robert and John H. Goldthorpe(1987a), "Commonality and Variation in Social Fluidity in Industrial Nations. Part I: A model for evaluating the 'FJH hypothe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 54~77.
- (1987b), "Commonality and Variation in Social Fluidity in Industrial Nations. Part II: The Model of Core Social Fluidity Appli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2): 145~66.
- Evans, David and Boyan Jovanovic(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4): 808~27.
- Featherman, David L. and Robert Hauser(1978), *Opportunity and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 Giddens, Anthony(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Hutchinson.

- Goldthorpe, John H. (1980),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Oxford: Clarendon.
- Haberman, Shelby J. (1973), "The Analysis of Residuals in Cross-classified Tables", *Biometrics* 29: 205~20.
- _____ (1978),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Vol 1: Introductory Topics*, New York: Academic Press.
- Hauser, Robert M. (1978), "A Structural Model of Mobility Tables", *Social Forces* 56(3): 919~953.
- _____ (1980), "Some Exploratory Methods for Modeling Mobility Tables and other Cross-Classified Data", in *Sociological Methodology 1980*, edited by Karl F. Schuessler, San Francisco: Jossey-Bass.
- _____ (1981), "Hope for the Mobility Ratio", *Social Forces* 60(2): 572~84.
- Hong, Doo-Seung (1980), "Two Channels of Social Mobility: Patterns of Social Mobility in Urban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5: 137~59,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ut, Michael (1983), *Mobility Tables*, Beverly Hills, CA: Sage.
- Ishida, Hiroshi, John H. Goldthorpe, and Robert Erikson (1991), "International Class Mobility in Postwar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4): 954~92.
- Jones, F. Lancaster, Susan R. Wilson, and Yvonne Pittelkow (1990), "Modelling Mobility: the Use of Simulation to Choose between Near-Equivalent Models", *Quality and Quantity* 24: 189~212.
- Kim, Byoung-kwan (1994), "The Unit of Analysis in Social Mobility Researc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3(2): 229~225.
- _____ (1995), "A Conceptual Model of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in an Industrializing Socie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4(2): 319~341.
- Koo, Hagen (1976), "Small Entrepreneurship in a Developing Society: Patterns of Labor Absorption and Social Mobility", *Social Forces* 54(4): 775~87.
- Lipset, Seymour Martin and Reinhard Bendix (1959),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cDonald, K.I. (1981), "On the Formul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the Mobility Table", *Social Forces* 60(2): 557~71.
- _____ (1983), "On the Interpret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the Mobility

- Table", *Quality and Quantity* 17: 203~24.
- Oshima, Harry T. (1970), "Labor-force 'Explosion' and the Labor-intensive Sector in Asian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2): 161~82.
- Parkin, Frank(1979), *Marxism and Class Theory: A Bourgeois Critique*, New York: Columbia Press.
- Pöntinen, Seppo(1982), "Models and Social Mobility Research: A Comparison of Some Log-Linear Models of a Social Mobility Matrix", *Quality and Quantity* 16: 91~107.
- Sørensen, Aage B. (1991), "On the Usefulness of Class Analysis in Research on Social Mobility and Socioeconomic Inequality", *Acta Sociologica* 34(2): 71~87.
- Stewart, A., K. Prandy, and R. M. Blackburn(1980), *Social Stratification and Occupations*, New York: Holmes and Meier.
- Stier, Haya and David B. Grusky(1990), "An Overlapping Persistence Model of Career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October): 736~56.

abstract

A Study on the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in Korea

Byoung-Kwan Kim

This paper was set out to study the structure of the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in the early and rapid phase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individual life histories regarding occupational mobility and achievement, I propose a model of yearly career mobility of Korean men and women during the period of 30 years between 1954 and 1983.

With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cheme of 5 groups — Upper Nonmanual, Lower Nonmanual, Self-Employed, Manual, Farm — the mobility pattern in the person-year mobility table analyzed can be characterized primarily by the strong influence of immobility. The degree of immobility, however, is different by the occupational groups. The absolute amount of immobility can be summarized as being U-shaped. Overall, the pattern of mobility can be explained best by the concept of occupational distance.

I then propose a model of relative career occupational mobility pattern that combines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basis and the methodological rigor. The model is based on the notion of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y, the labor market context, and the life history perspective. The model encompasses the 6 conceptual explanatory factors such as persistence effect, ceiling effect, traditional sector effect, nonmanual occupation effect, alternative mobility channel effect, and occupational distance effect, as well as the effects of both origin and destination occupations.

The relative pattern of career mobility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six findings. First, the persistence effect on the diagonal cells of the

mobility table is dominant. Second, a clear evidence of the negative effect of occupational distance between nonmanual occupations and manual and farm occupations is found. Third, the out mobility from farming took place regardless of the destination occupations. Fourth, the internal mobility within the nonmanual occupation block is high and bi directional, and is exclusive against other occupations. Fifth, the 'self-employed' occupation is serving a peculiar function in both inflow and outflow pattern. Last, the relative pattern of career occupation mobility is asymmetrical in terms of the upward and downward mobility.